



대학주보



등록금 환급 비율 실납부액의 5% '교육환경 개선' 논의도 합의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지난달 28일 학생과 학교가 특별 장학금 형태로 지급될 등록금의 반환비율 5% (32.5억)로 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해당 문제를 두고 줄곧 평행선을 달려온 양측이 개강을 나흘 앞두고 합의점에 이른 것이다. 합의 시점이 2학기 개강일을 넘기지 않아 지난달 졸업한 학생도 특

별장학금을 받게 됐다. 학교는 2학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 측이 제안한 '교육환경개선안'도 수용했다. 앞서 양측은 '등록금 반환' 문제를 두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세 차례에 걸친 '등록금 반환 회의'를 진행해온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잇따르자, 7월 14일 우리학교는 1차 등록금 반환 회의를 열었다. 이날 양측은 "특별장

학금 형태로 일부 등록금을 반환하자"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뤄냈지만, 지급 방식이나 액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1차 회의의 주된 의제는 '등록금 반환비율'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 최인성(생물학 2016) 회장은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의 20%를

2면으로 이어짐

알림



우리신문이 이번 1662호부터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탈바꿈했다. 지난 2007년 대판에서 베를리너 판형으로 변경한 것에 이은 두 번째 판형 변경이다. 타블로이드 판형(254mm*374mm)은 기존 베를리너 판형보다 콤팩트한 사이즈다.

미디어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감에 따라 점차 판형을 축소해나가는 신문 업계의 흐름과도 맞닿아있다. 실제 영국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 《더 타임스》 등은 타블로이드 판형을 채택해오고 있다.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를 지향해

온 우리신문도 새로운 판형으로의 변경을 통해 유통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다. 판형이 축소됨에 따라, 이메일 뉴스레터 등을 통한 디지털 판형 유통 과정에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기 달라짐에 따라 그 내용 또한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판형 축소와 함께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했다. 이로써 기사 주제를 더욱 세분화하고, 한 면에 단일한 기사를 배치해 디자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정형화된 레이아웃을 벗어나고자 한다.

사령

면

〈서울뉴스팀장〉장보경(언론정보학 2018)

〈국제뉴스팀장〉문하령(한국어학 2017)

인재양성 위한 BK21사업, 7개 연구단(팀) 치열한 경쟁 뚫고 예비 선정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우리학교 7개 교육연구단(팀)이 4단계 BK21(BrainKorea21) 사업에 예비 선정됐다. 현재 최종 선정에 앞서 후보 대학에 대한 이의제기 건 심의 및 현장점검 중이며, 9월 중 확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4단계 BK21 사업에 최종 선정된 교육 연구단(팀)은 2020년 9월부터 7년간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 대학원생은 석사과정 월 70만

원, 박사과정 월 130만원, 신진연구자 월 3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각각 지원받는다.

우리학교는 4단계 BK21사업에 지원한 93개 대학 중 교육연구단이 5개 이상 예비 선정된 대학인 '혁신지원대학'으로 선정돼 대학원혁신 지원비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대학원혁신지원비는 대학 차원에서 대학원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

로 하며, 대학별 교육연구단 수, 참여 교수 및 지원 대학생 수 등을 고려해 배분된다.

예비 선정된 우리학교 7개 교육연구단(팀)은 ▲지속가능한 스마트관광·호스피탈리티 교육플랫폼 사업단 ▲역사 분야 글로벌 문명교류사 ▲지속가능 빅데이터 신산업 선도인력 교육연구단, ▲차세대 가상증강현실 하드웨어 선도시스템 혁신교육연구단 ▲기능형 다차원 프로그래밍 소재 및 시스템 융합기

술 교육연구단 ▲융합미래통신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초고령 사회 플랫폼 기반 고령서비스-테크 문제해결형 혁신인재 양성사업단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BK21 사업은 우수 대학원 역량 강화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학문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앞서 BK21 사업은 1단계(1999~2005), 2단계(2006~2012), 3단계(2013.9.~2020.8.)를 거쳤으며 이번 4단계는 교육연구단의 수와 비중을 더욱 확대했다.

교육부 측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통해 우리 대학들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